

## 박선석 장편소설 연구 — <쓴웃음>과 <재해>를 중심으로 —

최 병 우\*

### 요 약

박선석은 상훈문학과 반시문학 등 문혁의 상처를 소설화하던 시기로부터 십여 년 후에 <쓴웃음> 연작을 창작하였다. 이 시기 조선족 문단에서는 중국 주류 문단의 흐름과 한중수교 이후 불어닥친 한국문학의 영향으로 거대서사보다는 미시서사가 강조되고, 한국과의 교류로 형성된 이중정체성을 주제로 하는 등 다양한 창작 상의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박선석은 조선족 문단의 변화와는 달리 대약진운동부터 문혁에 이르는 시기의 조선족 농민의 삶을 재현하여 동시대를 경험한 독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쓴웃음> 연작은 대약진운동에서 문혁에 이르는 시기가 갖는 문제의 복잡성을 제거하고 산재지구에서 경험한 작가 자신의 경험에만 한정하여, 대다수 조선족들이 경험한 연변 지역의 대약진운동이나 문혁과는 크게 다른 상황을 소설화하였다는 한계를 보인다. 또 이들 작품은 독자들과 공유한 경험을 에피소드의 연쇄를 사용하여 작품 읽기를 수월하게 하고, 독자들에게 친숙한 선명한 선악의 대립구도와 권선징악의 결말을 사용한 것은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쓴웃음> 연작은 대약진운동에서 문혁에 이르는 정치적 혼란기에 대한 의미화를 통해 개개의 사건들에 대하여 작가로서의 분명한 시각을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작품 속의 사건들은 유기적 의미를 갖지 못하고 에피소드로만 존재하게 된다. 박선석은 이 두 작품을 통하여 중국당대사의 정치적·정책적 오류로 인해 중국 인민 특히 조선족들이 경험한 고통을 소설

\* 강릉원주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화하였지만, 그것이 이렇듯 에피소드의 연쇄로 끝나고 만담의 수준으로 하락한 것은 이들 작품이 가진 소설적 한계라 하겠다.

주제어: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 농촌현실, 인위적 재해, 에피소드의 연쇄, 권선징악

## 목차

1. 서론
2. 농민의 삶으로 재현한 중국현대사의 비극
3. 인물의 성격과 서사 구조의 단순성
4. 결론

## 1. 서론

조선족 작가 박선석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가 평생을 ‘농민’<sup>1)</sup>으로 살았다는 사실이다. 박선석은 1945년 3월 25일 길림성 집안시 유림향 영수촌에서 부농으로 분류된 가정에서 출생하여 부농의 자제라는 이유로 극좌노선이 지배하던 젊은 시절을 정치적 박해 속에서 어렵게 지냈다.<sup>2)</sup> 1961년 매하구시 제2중학교를 졸업하

- 1) 중국에서 ‘농민’이란 직업이 아니라 신분에 해당한다. 중국의 호적 제도에 따르면 농업 호적을 가진 공민 즉 농민은 원칙적으로 다른 호적으로 전환할 수 없고 도시로 이주할 권리도 없다. 중국 사회에서 농민의 신분적 특징에 대해서는 최삼룡, 『박선석의 소설과 농촌사회학, 박선석의 소설을 보는 한 시각』(『연변문학』 2008.11.) 1장을 참조할 것.
- 2) 박선석의 증조할아버지는 삼일운동 때 체포되어 고문을 받다가 운명하였고, 할아버지는 연변 지역에서 항일운동을 하다가 민생단 사건에 연루되어 사망하였다. 그의 아버지도 민주연맹에 가입해 공산당 유격대를 돕다가 1947년 국민당

고 농민 신분으로 농촌에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박선석은 답답한 마음을 글쓰기로 달래다가 개혁개방 이후 복권이 되자 1980년 단편 『밭자국』으로 등단하여 현재까지 100편이 넘는 소설을 발표하였다. 이런 점에서 박선석은 평생을 농민 신분으로 농업 노동에 종사<sup>3)</sup>하면서 과외로 소설 창작을 계속한 진정한 ‘농민’작가라 하겠다.

박선석은 농민으로 살면서 자신이 체험한 바를 바탕으로 창작에 임하였기에 대부분의 작품은 농촌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여 농민이나 농촌의 간부들이 직접 경험한 사건들을 해학적으로 서술한다. 또 박선석의 대표작인 장편소설 <쓴웃음>과 <재해>는 건국 직후 토지개혁 때부터 문화대혁명<sup>4)</sup>이 끝날 때까지의 농촌의 현실을 치밀하게 형상화하여 정치가 모든 것의 우위에 놓인 시기에 조선족 농민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매우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의 작품이 가진 이러한 특징은 문화대혁명 때 불합리를 직접 체험한 농민 독자들에게 인기를 얻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sup>5)</sup>

우과의 자식으로 성장기의 대부분인 30여년을 정치적 박해를 받으며 보낸 박선석은 문혁이 끝나고 20년의 시간이 경과하여 창작의 자유가 어느 정도 확보된 1990년대 중반에 정치가 일상을 지배하는

군에 체포되어 사형당할 위기에 처했지만 한족 지주의 보증으로 살아남았다. 이후 산골짜기에 눈을 풀어 경제적 안정을 얻고 마을 아이들을 위해 소학교도 세운 아버지는 토지개혁 때 농회 선전위원으로 있으면서 백 호가 넘는 마을에 지주나 부농이 하나도 없으면 곤란하다는 공작대의 지적에 스스로 부농으로 신분을 분류하였는데 이후 부농이라는 이유로 가장집물까지 다 뺏기고 온갖 투쟁을 당하다가 문화대혁명 중에 운명했다. 그 결과 박선석도 부농의 자제로 분류되어 개혁개방으로 복권되기까지 삼십여 년 동안 암울한 삶을 살았다. 서령, 『박선석 문학연구』, 인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9-12면 참조.

3) 박선석은 1990년대 중반 매하구시 조선민족문화관에 초빙되어 일한 적이 있으나 2년도 견지하지 못하고 그만두었으며 그 일을 하는 사이에도 농사를 그만둔 적이 없다고 한다. 최삼룡, 앞의 글, 116면.

4) 이하 ‘문혁’으로 약칭한다.

5) 박선석 소설의 대중적 호응의 양상과 그 요인과 의의 등에 대해서는 박춘란, 『박선석 소설 연구』(『한중인문학연구』 39, 2013.4.)에 상론된 바 있다.

시기의 모순된 사회의 모습을 비판하는 작품을 『장백산』에 발표하기 시작한다. 1995년부터 7년간 연재를 하고 단행본으로 출간된 〈쓴웃음〉<sup>6)</sup>은 문혁을 전후한 10여년의 사건을, 그리고 이어서 2004년부터 2년간 연재하고 출간한 〈재해〉<sup>7)</sup>는 〈쓴웃음〉에서 다룬 시간보다 앞선 정치중심 시기를 제재로 하고 있다. 이 두 작품은 시대적 상황이나 제재의 설정은 거의 동일하고 먼저 발표된 〈쓴웃음〉이 시간적으로 〈재해〉에 이어진다는 점에서 연작에 해당한다.<sup>8)</sup>

박선석 소설의 대표작으로 평가되는 〈쓴웃음〉 연작에 대한 연구는 중국 조선족 내에서의 작품의 인기나 명성에 비해 소후하다. 박선석의 인기와 명성에 맞추어 그의 문학에 대한 학술세미나도 몇 차례 개최된 바 있다.<sup>9)</sup> 학술세미나와는 개별적으로 수행된 평문으로 최삼룡의 평문<sup>10)</sup>이 있으며, 본격적인 연구는 서령<sup>11)</sup>이 선편을 짚어 작가의 생애 조사와 작품에 대한 기본 정리가 이루어졌다. 박선석 문학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한 박춘란은 2013년 〈쓴웃음〉 연작을 대상으로 한 『중국의 정치변동과 조선족 농촌사회의 문학적 형상화』로 성균관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박선석 소설 연구』(『한중인문학연구』 39, 2013.4.), 『박선석 소설의 이데올로기 연구』(『한민족문화연구』 42, 2013.4.), 『문화대혁명과 조선

6) 박선석, 《쓴웃음 상, 중, 하》, 료녕민족출판사, 2003. 이하 작품 인용은 ‘쓴웃음 권수’, 면수’로 한다.

7) 박선석, 《재해》,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2007. 이하 작품 인용은 ‘〈재해〉, 면수’로 한다.

8) 이하 두 작품을 동시에 지칭할 때는 ‘〈쓴웃음〉 연작’이라 한다. 〈쓴웃음〉 연작이 제재, 서사 상황, 인물 성격, 갈등 구조, 사건 전개 등의 설정이 유사하고 시간적 선후가 뒤따라 있어 있다는 점에서 〈재해〉는 〈쓴웃음〉의 성공에 기대어 시간적 배경만을 달리해 창작한 작품이라는 지적이 가능하다.

9) 1996년, 2002년, 2010년 등 세 번의 학술세미나가 개최되었는데 세 차례 모두 『장백산』 잡지사가 관계했다. 이 세 차례의 박선석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평문이 그간 박선석 문학 연구의 중심이 되고 있다.

10) 최삼룡, 앞의 글.

11) 서령, 앞의 글.

죽 농촌사회의 문학적 형상화」(『한중인문학연구』 46, 2015.2.) 등의 논문을 통하여 〈쓴웃음〉 연작의 주제적 특징, 사상적 경향, 미학적 특징 등 다양한 면모를 정리한 바 있다. 박선석의 〈쓴웃음〉과 이 문구의 〈장한몽〉을 비교한 김현철은 〈쓴웃음〉의 이광수와 〈장한몽〉의 김상배는 역사 속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치적 이유로 억압받은 작가 자신의 초상이며, 그들의 행적은 소설을 통하여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라 규정하고 치유의 양상을 면밀히 비교·고찰하여 박선석 문학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sup>12)</sup>

본고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문혁까지 공명의 시기<sup>13)</sup>를 시간적 배경으로 한 〈쓴웃음〉 연작의 주제적 성격과 함께 이 연작이 가진 서술방식의 특징을 살피고자 한다. 〈쓴웃음〉 연작에 대한 그간의 평가는 정치중심 시대의 모순과 피해를 사실적으로 담아내고 있고, 이 기간 동안 조선족 농민들이 경험한 불합리와 정치중심 시대의 이데올로기의 비현실성 등을 고발하고 비판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묵직한 주제들이 구체적 사건들과 해학적인 문체를 통하여 얼마나 생동감 있게 그려지고 있는가 등을 논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그간의 연구들이 보여준 작품의 주제에 대한 평가를 수용하면서 조선족의 문혁에 대한 소설화 방식이라는 관점에서 〈쓴웃음〉 연작이 여타의 조선족 소설들과 다른 특징을 살피고, 이와 함께 이 연작이 보여주고 있는 서사적 장치를 분석하여 그 의의와 한계를 해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이 연작이 가진 소설적 가치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비판적 시각을 동시에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12) 김현철, 『박선석과 이문구 소설에서의 상처 치유 양상 비교』, 『현대문학의 연구』 59, 2016.6.

13) 천쓰허는 5,60년대의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계급투쟁 강령', '두 노선의 투쟁' 같은 통일된 거대한 시대적 주제들이 시대정신의 향방을 무게 있게 담아내기는 했으나 동시대 지식인들이 다양한 문제의식으로 사고하는 것이 제약이 되는 문화 상태를 '공명'이라는 용어로 정리한 바 있다. 천쓰허, 노정은·박난영 역, 『중국당대문학사』, 문학동네, 2008, 25-26면.

기대한다.

## 2. 농민의 삶으로 재현한 중국현대사의 비극

### 1) 농촌 현실의 희화화를 통한 문혁의 비인간성 비판

〈쓴웃음〉은 1963년부터 인민공사를 중심으로 전 인민을 상대로 전개된 정치, 경제, 조직, 사상을 깨끗이 하여 진정한 사회주의를 이루자는 사청운동부터 사회주의 운동이 보다 복잡화한 양상으로 전개된 문혁이 끝날 때까지를 시간적 배경<sup>14)</sup>으로 하여 정치운동이 지배하던 시기의 왜곡되고 모순에 찬 사회 현실을 비판적으로 그려낸다. 사청운동과 문혁으로 경제나 문화와 같은 사회의 제반 문제는 부차적인 것이고 전 사회가 사회주의 특히 모택동주의로 무장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인식되는 즉 정치중심의 시대가 도래한다. 이백 가구에 이르지 않는 작은 조선족 농촌인 팔방 마을에 사청운동과 문혁이 몰아치자 상부상조하며 화목하게 살아가던 순박했던 농민들이 자본주의로 복벽하려는 자들을 색출하는 정치 투쟁에 내몰리게 된다.

팔방 마을에는 한 시기 중국 사회에 광풍으로 휩쓸고 간 정치투쟁들이 몰아닥친다. 봉건적이고 자본주의적인 낡은 관습을 쓸어내고

14) 흔히 문혁을 권력투쟁 과정에서 벌어진 특수한 사회주의 운동으로 이해하지만, 박선석이 이 작품에서 사청운동을 문혁의 출발점으로 본 것은 농민으로 체득한 농촌의 문혁에 대한 정확한 인식일 수 있다. 복건성 린 마을의 예서기는 체험을 바탕으로 농촌에서는 문혁보다 토지개혁이나 사청운동이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며, 홍위병에 의해 전개된 것으로 알려진 '파사구(破四舊) 같은 대규모 파괴를 몰고온 사회 운동도 사청운동 기간에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황수민, 양영균 역, 『린 마을 이야기』, 이산, 2003, 170-175면 참조.

진정한 사회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사청운동, 진정한 사회주의자로 거듭나기 위하여 모택동의 교시를 따라 배우는 모주석 저작 학습운동, 낡은 이념에 기대어 자기 계급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지도부를 공격하라는 지도부 포격운동, 주변에 남아 있는 봉건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유물을 일거에 파괴해 버리자는 파사구 운동, 기왕에 깔려 있는 지주-부농과 중하빈농이라는 계급 차이를 보다 분명히 하고 자본주의적으로 복벽하는 자들과 계선을 정확히 가르는 계급대오 청리운동, 진보도 전투 이후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광풍과 이에 따른 방공호 파기 운동, 임포 숙청 이후 몰아닥친 임포와 공자를 공격하는 비림비공 운동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회주의 운동의 광풍이 몰아닥칠 때마다 팔방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투쟁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 타인을 무함하는 일을 반복한다.

사청운동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팔방 마을 사람들의 계급은 분류되어 있었다. 반우파운동 시기에 우파분자 고깔을 쓰고 팔방 마을로 하향된 강명길과 토지개혁 때 공작대가 팔방 정도의 큰 마을에 부농이 없으면 안 된다고 스스로 부농으로 분류한 리용구 영감과 아들 리광수<sup>15)</sup> 그리고 몇몇 부농 출신이 계급의 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매년 정치투쟁이 진행될 때마다 새로운 계급의 적이 탄생되어야 했고, 그에 따라 이들 계급의 적들과 함께 새로운 정치 운동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계급의 적으로 투쟁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과정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면서 팔방 마을에서의 문혁의 전개는 정치운동이거나 사상운동이기보다는 토지개혁과 사청운동으로 정해진 계급 모순과 투쟁의 연속이었고 개인적인 권력욕과 성적 욕망 그리고 복수심 등으로 증폭된 폭력적인 운동으로 변질된다.

15) 리용구-리광수 부자는 박선석이 자신의 삶을 투영한 존재로 이해해 볼 수 있다. 김현철 역시 박선석이 '이광수'라는 자화상을 통하여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으로 이해한다. 김현철, 『박선석과 이문구 소설에서의 상치 치유 양상 비교』, 『현대문학의 연구』 59, 2016.6, 452면.

송길동은 부농 출신으로 부친이 죽은 뒤 주색잡기로 재산을 다 날리고 떠돌다 수전 개발로 인력이 모자라는 팔방 마을에 자리 잡아 토지개혁 때 빈농으로 분류된 인물이다. 권력욕이 지나친 송길동은 사청운동 기간부터 남보다 빨리 공작대의 눈에 들어 팔방 마을의 농민대장 자리를 차지하고, 일의 옳고 그름을 차치하고 당의 정책만 철저하게 실천해서 옷사람의 눈에 든다. 또 주관이 없고 게으른 청년인 방춘달은 성적 욕망이 남달라 제가 좋아하는 여성을 얻기 위해 송길동의 앞잡이가 되어 마을의 권력으로 나아가게 된다. 송길동과 방춘달은 자신들을 업신여긴 이전 마을 간부들에게 앙갚음할 마음도 없지 않고, 위에서 하달되는 정책을 강압적으로라도 실현해야 하고, 자신의 권력도 유지할 목적으로 사청운동 때 공작대원들이 했듯이 쉽없이 마을 사람을 모아 회의를 하고 비판을 하고 정치투쟁을 하게 하여 서로 의심하고 비판하고 무함하게 만든다. 예컨대 '29장 신경과민' 편<sup>16)</sup>에서 총 분실 사건이 발생하자 반동 조직의 준동으로 규정하고 최영삼을 반동조직원으로 몰아 투쟁을 하자 최영삼은 이를 모면하기 위해 적극분자인 방춘달을 자신의 상급이라 물어먹는다. 또 투쟁대회 때마다 폭력을 휘둘렀던 방춘달은 자신에 대한 투쟁에서 쏟아지는 매를 견디지 못해 자신을 제일 많이 때린 김성규와 차문남을 물어먹는 등 서로 물고 물리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그 결과 팔방 마을에서 문혁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서로가 서로를 물어먹는 상황을 연출하여 인간성이 훼손되고 작은 공동체 내의 인간관계가 파탄이 나게 된다.<sup>17)</sup>

정치중심주의가 극에 달한 문혁으로 중국사회가 경험한 혼란과 폐해를 구체적인 사건들을 통해 회화하고 있는 〈쓴웃음〉은 조선족

16) 〈쓴웃음 중〉, 1321-1370면.

17) 〈쓴웃음〉에는 무수히 많은 사건들과 투쟁대회가 등장하나 이들 모두는 문혁이라는 잘못된 정치운동에서 비롯된 비극이며, 순박한 농촌 공동체의 파괴 과정에 다름 아니다.



농촌 마을에 불어닥친 혁명의 양상을 드러낼 뿐이다. 이는 작가 박선석이 우과분자 농민으로 생활하면서 직접 경험한 기억이자 주변 사람들과 공유한 문혁의 기억이다.

원래 필자는 98년 6기에 실린 <쓴웃음> 속의 ‘번태’를 보고 독후감 삼아 여기 이 고장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사건들을 몇 건 적어 편지로 보내고저 3500자 가량 써놓았는데 연후에 발표된 ‘구원’과 ‘도주’를 보니 상당히 많은 사건들이 어쩌면 내가 써놓은 것과 일치할 줄이야.<sup>18)</sup>

독자 투고문인 인용문은 <쓴웃음>의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제재들이 작가 자신의 직접 체험과 주변 사람과 독자들의 제보를 통해 수집한 것임을 짐작하게 해준다. 농민 박선석이 자신에게 제보된 사건들 중에서 자신의 체험과 일치하거나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있을 법하다고 판단되는 사건들을 선택하였기에 <쓴웃음>에 등장하는 사건들은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문혁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문혁 초기에 가장 극렬한 활동을 보인 것은 홍위병과 같은 반란파들이 기존의 공산당 지도부를 공격하여 권력을 탈취하려 하고 지도부를 우위하려는 세력들이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내전 수준의 전투를 치른 데 있다. 그러나 반란파와 수구파 간의 무력 투쟁과 같은 극도의 혼란은 팔방 마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팔방 마을의 경제적 발전을 위해 애쓰던 정인철 대장이 사청운동 시기에 수구파로 몰려 철직 당하고 그 자리에 송길동이 오른 후에 새로운 타도의 대상이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더구나 정인철이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상황에서 그를 더 이상 투쟁 대상으로 삼기가 어렵고 정인철의 아들 정태안이 현의 홍위병 대장으로 활동하고 마을로 내려오는 상황에서 송길동은 정인철을 산 속에 있는 농장의 경영자로 올려 보내는

18) 『장백산』 1999년3월호, 207면. 박춘란, 앞의 글, 241면에서 재인용.

정도로 그치고, 그를 도와 일하던 이전 간부들을 투쟁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나 사청운동 때 만들어진 신분과 조직에 의한 투쟁이 지속되면서 문혁이라는 정치운동 기간 내내 투쟁이 반복되고 그에 따른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팔방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가 서로를 물어먹는 비인간성이 드러나고 점차 마을 사람들은 정치투쟁에 질리게 된다. 이런 점에서 〈쓴웃음〉은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문혁이 크게 다르게 진행되었으며 정치 투쟁으로서의 강렬함이 존재했던 도시 지역의 문혁과는 달리 농촌 지역의 문혁은 사청운동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었음을 보여주어 농촌 지역 문혁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런데 〈쓴웃음〉에 등장하는 팔방 마을의 조선족 농민들이 경험한 문혁은 조선족 집거지인 연변 지역의 문혁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연변 지역의 문혁은 이 시기 중국 전역에 불어닥친 정치적 문화적 혼란과 함께 소수민족 문화 말살 정책에 따른 핍박, 중국과 북한의 외교적 대치에 따른 조선족에 대한 의심과 비판 등 삼중적인 고난이라는 특징을 지닌다.<sup>19)</sup> 연변 지역에서는 주덕해를 위시한 연변 지역의 공산당 기존 세력을 공격하라는 모원신의 지도에 따라 주덕해를 몰아내려는 홍색파가 만들어지고 조선족자치주를 만들어 조선족의 삶을 윤택하게 만든 주덕해를 옹호하려는 세력들이 모여 보황파 조직을 조직해 무력 투쟁으로 이어져 엄청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더욱이 조선족들이 북한의 스파이라는 대자보가 붙는 상황에 까지 이르러 문혁 기간 연변 지역의 조선족들이 경험한 고통은 이루 말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쓴웃음〉에는 이러한 연변 지역의 조선족들이 경험한 바와 같은 폭력과 파괴적인 혼란은 존재하지 않는다.

19) 연변 지역의 조선족이 경험한 문혁의 삼중적 고난에 대해서는 최병우, 『조선족 소설과 문화대혁명의 기억』(『현대소설연구』 54, 2013.12.)의 2장 2절 연변 문혁의 특수성(499-508면)에서 상론된 바 있다.

산재 지구의 작은 조선족 농촌 마을에서의 문혁이란 같은 마을 사람끼리 계선을 나누고 투쟁을 반복하는 것으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물어먹으면서 심한 갈등이 발생하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 인간관계가 깨어지기는 하지만 무차별적인 폭력 사태로 발전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된다. 〈쏟웃음〉에서 보이는 이러한 문혁의 양상은 산재 지구 농촌 지역에서 벌어진 문혁의 양상으로 연변 지역의 문혁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바, 이는 박선석이 〈쏟웃음〉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산재 지구의 농민으로 직접 체험한 사실을 제재를 선택한 결과로 이 작품이 갖는 의의이자 한계라 할 수 있다.

## 2) 공산주의적 경제 정책에 따른 인위적 재해 비판

〈쏟웃음〉이 문혁 기간의 정치 투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데 비해 〈재해〉는 대약진 시기의 경제정책의 오류에 따른 공핍과 기아로 인하여 조선족 농촌 사회가 와해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토지개혁 이후 중국 정부는 단기간에 경제 발전을 이룩하여 영국과 미국을 능가하는 공산주의 사회를 완성하려는 열망에 현실성이 없는 경제 정책을 수립하여 지역적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시행한다. 공동노동을 통해 노동생산력을 높여 빠른 시간 안에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개체에 의한 농업을 포기하고 집체화를 시도하여 합작사를 거쳐 인민공사로 진행한다. 토지와 가축 그리고 모든 재산의 개인 소유를 금지하고 합작사 소유로 전환한 뒤 공동으로 작업하고 소득은 통일 분배하자 당장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땅이 많은 것도 나쁜가?”

땅 욕심이 많은 리석태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땅이 많으면 뭘 하우? 농사를 많이 지어선 뭘 하나 말이

요? 많이 벌었건 적게 벌었건 통일분배를 하는데, 안 그렇소?”

그 말도 틀리지는 않았다. 분배 방법이 틀려먹었다. 리석태는 할 말이 없어 쓴웃음을 지었다. 아무튼 세월이 변했다고 생각했다. 세상도 변하고 사람도 변했다. 격세지감이 난다. 해방 전에는 손바닥만한 땅도 없어 소작살이를 동냥을 해먹던 사람들이 인제 땅이 싫단다. 토지개혁 할 때는 한 치의 땅이라도 더 가지려고 아웅다웅 다투던 사람들이 인제 땅을 적게 가지겠다. 농사꾼이 땅을 싫다고 하니 어딘가 잘못 되어도 크게 잘못 되었다. 농업합작화가 잘 되겠는지가 의심된다.<sup>20)</sup>

팔방 마을 사람들이 리석태에게 불만을 터뜨린 바대로 공동 작업을 하고 통일 분배를 하는 공산당의 정책은 농민들의 근로 의욕을 상실시킨다.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간다는 공산주의적인 정책은 인간의 욕망을 도외시한 이상론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려명촌 농민들은 자신이 속한 조가 조금이라도 적은 땅을 맡아서 남보다 편하게 농사를 짓고 가을에 분배는 같이 받고자 한다. 농민들의 의식이 이러하다면 농업 합작화는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일이어서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한 해동안 뼈 빠지게 농사를 지어 한 호구 당 분배된 소득이 10원에 그치는 상황을 맞이한다.

상급에서는 이와 같이 농촌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 지속적으로 하달되고, 합작사나 인민공사의 지도자들은 사원들을 닦달하여 어떻게 해서든 하달된 정책을 실천하여 상급의 신임을 얻으려 노력한다. 그 결과 과장된 성과가 보고되고 그에 따라 상급에서는 더 높은 목표치를 하달하여 결국은 국가 경제 전체가 파탄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급의 지시대로 집행하다가 좌절하고 사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혀 술한 욕을 얻어먹는다. 사원들의 믿음을 잃은 간부들이 매사에 신중해져 상급의 지시에 맹목적으로 따르지

20) 〈재해〉, 156면.

않고 하달된 정책에 대해 회의하기도 하지만, 상급에서는 이러한 간부들을 비판대에 올리고 철직시키는 등 압박을 가해 간부들은 어쩔 수 없이 상급의 정책을 따르게 된다.<sup>21)</sup> 이러한 현실성이 없는 정책의 강압적인 집행에 따라 나타나는 우스꽝스러운 결과는 <재해>의 전체 줄거리를 형성한다.

합작사와 인민공사 같은 집체 농업의 실패는 물론, 노동력에 비해 수자원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고 큰비가 올 때 홍수의 빌미가 되는 소규모 저수지 만들기, 인민공사마다 소규모 제철로를 만들어 철강 생산을 하도록 독려하려다가 멸절된 철제품으로 파철만 만들고 노동력 상실로 농사를 망치는 현실, 대규모 인력을 동원하여 참새와 쥐를 박멸하려 했다가한 천적의 부재로 오히려 더 심해진 병충해, 논농사에 대한 기초 상식도 없이 증산을 위해 심경과 밀식을 강요하는 일 등, 반복되는 정책의 오류로 농민들은 극도의 궁핍으로 내몰린다. 특히 노동집약적인 논농사에 매달리는 려명촌의 농민들은 농번기에 저수지 공사, 참새 잡이, 제철 사업 등으로 노동력이 분산되어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유발한다. 게다가 한전이나 필요한 듯한 작물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해 증산하려 땅을 깊게 가는 농법인 심경은 소들이 눈에 들어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농민들의 노동력을 배가시키고, 단위당 생산량을 높인다고 많은 모를 좁은 간격으로 내는 밀식은 벼를 웃자라게 하고 도열병이 창궐하게 하여 한 톨의 쌀도 수확하지 못하는 결과를 빚고 만다. 이러한 정책의 혼란 속에 가뭄과 홍수가 번갈아 닥쳐와 몇 년간 대홍년이 들자 옥토로 소문이 난 려명촌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유리결식하는 일이 발생한다. 경제 정책의 오류로 점철된 대약진운동으로 인해 성실한 농사꾼으로 마을의 존경을 받는 노당원 김덕순조차 아들을 저수지 공사장 사고로 잃고 아내가 굶어 죽자 며느리와 막내아들을 위협을 무릅쓰고

21) <재해>, 310-316면.

북한으로 월경시키기에 이른다.<sup>22)</sup>

〈재해〉는 대약진운동 시기에 중국 전역에 만연한 급진적인 공산주의 경제 정책의 운용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혼란과 수많은 농민들이 아사에 이르는 비극을 그려내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궁핍과 기아를 2년 연속 계속된 자연재해의 탓으로 돌리려는 려명촌의 생산대장 최만근의 변명에 대해 그간 당에서 내려온 정책의 오류를 지적하며 이것이 자연재해의 탓이냐고 반문하며 울분을 터뜨리는 김덕순의 말<sup>23)</sup>은 대약진운동 시기에 정치운동을 배경으로 공산주의적인 경제 정책을 강제로 추진하는 오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은 것은 인위적인 재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치가 중심이 된 반우파투쟁 시기부터 문혁까지의 20년 세월의 모순에 가득찬 중국 농촌의 현실을 세밀하게 그려 철저하게 비판하고 회화화한 〈쓴웃음〉 연작은 문혁이 끝난 지 20년이 지난 시기에 십여 년간 연재되어 독자들에게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쓴웃음〉 연작이 대중적인 인기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농민들이 경험한 부조리와 불합리 그리고 고통스러웠던 삶을 통해 문혁과 대약진운동의 실상을 고발한 데 기인할 것이다. 박춘란은 〈쓴웃음〉 연작의 대중적 호응의 요인에 대해 역사에 대한 기억의 공감과 진지한 성찰 유도, 국가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비판의식 분출, 가난 극복의 욕망에 대한 당위성 제공<sup>24)</sup> 등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이는 개인이 경험한 고통의 기억을 되살리고 국가의 부당함을 비판하였다는 점

22) 과경민족인 조선족들은 중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북한으로 이주하거나 다시 중국으로 귀환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대약진운동 시기에 3만 명이 가까운 조선족들이 아사를 면하기 위해 북한으로 건너갔고 이는 문혁 기간 중에 조선족들을 북한의 스파이로 몰아가는 빌미가 된다. 최병우, 앞의 글, 505면.

23) 〈재해〉, 538면.

24) 박춘란, 앞의 글, 252면.

과 함께 개혁개방 이후 경제 우위 정책에 따른 정치의식의 변화를 〈쓴웃음〉 연작의 의의로 정리한 것은 1990년대 후반이라는 중국 현실을 고려한 의미 있는 평가라 하겠다.

### 3. 인물의 성격과 서사 구조의 단순성

#### 1) 인물의 성격과 갈등의 비현실성

문혁 기간의 정치 투쟁의 모순을 그리고 있는 〈쓴웃음〉에는 크게 나누어 다섯 가지의 인물군이 등장한다. 팔방 마을 외부에 존재하며 상부에서 하달된 새로운 정책을 시달하고 정책의 시행 여부를 감독하는 상급 지도자들은 중간 간부로서 정부가 결정하고 하달하는 정책을 지시하고 감독하는 일만 처리하고 정책에 대한 타당성이나 현실성 등을 회의하지 않는 단순한 권력을 손에 쥔 꼭두각시일 뿐이다. 그리고 팔방 마을 사람들은 네 가지의 인물군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청운동과 문혁이라는 정치적 혼란기에 약삭빠르게 상급 지도자의 신임을 얻어 마을의 권력을 쟁취하고 그들의 지시에 맹종하여 마을을 혼란으로 내모는 인물, 정치 운동의 와중에 부화뇌동하며 놀고먹으면서 정치 투쟁에 앞장서서 타인을 괴롭히는 인물, 계급의 적으로 분류되어 있기는 하나 성실하고 경제 능력이 뛰어난 인물 그리고 정치 문제에 큰 관심이 없으나 투쟁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 현실을 관망하고 추종하는 인물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쓴웃음〉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다.

상급의 지도자(O) : 공작대장 백명길, 현 혁명위원회 왕동방홍주임 등

권력에의 추구자와 맹종자(A) : 송길동, 방춘달 등  
 부화뇌동자와 열성분자(B) : 전화숙, 강만화 노친, 김순임, 최순필 영감 등  
 우파, 부농 등 계급의 적(C) : 강명길, 리용구 리광수 부자, 정인철 등  
 현실 관망 및 추종자(D) : 대다수 팔방 마을 사람들<sup>25)</sup>

〈쓴웃음〉의 작중인물들을 이렇게 다섯 인물군으로 나누었을 때 작품의 갈등 구조는 O의 방조 아래 A의 지도에 따라 B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C를 비판하고 투쟁하는 과정에 D는 동조하거나 방관한다.

송길동은 내부에서 적발하고 외지에 가 조사를 하여 계급의 적들의 자료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했다. 그는 말을 마치고 큰 소리로 물었다.

“혁명적 동지들, 계급의 적들과 끝까지 싸울 결심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열성분자들이 힘차게 대답했다.

“그런 지금부터 자기들의 결심을 발표하겠습니다. 누구부터 하겠습니까?”

열성분자들은 다투어 손을 들었다 (중략)

“저 뒤에서는 왜 병어리들인가? 이번 운동에 안 참가하겠는가? 강명길!”

“보다싶이…… 저는 인민의 적이기에 …… 할 말이 없습니다.“

25) 〈재해〉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크게 이러한 구분이 가능하다. 다만 정치투쟁의 강도가 약하여 B와 D 유형의 인물군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 A유형에는 생산대장 최만근이 C유형에는 실농군 리석태, 노당원 김덕순 등이 포함되며 작품 내에서의 역할은 대등하다.



“할 말이 없다니? 태도부터 틀려 먹었구만. 그럼 어떻게 탄  
백을 잘 하구 투쟁을 잘 받겠다는 결심도 없는가?”

사람들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투쟁을 잘 받겠다는 결  
심을 하라니 말이다.<sup>26)</sup>

상급에서 내린 계급투쟁을 올곧게 시행하려는 송길동은 마을 회  
의 장소에서 성공적인 계급투쟁을 이어가기 위한 결심을 발표하  
고 말하자 부화뇌동하는 열성분자들이 앞다투어 자신의 결심을 밝  
힌다. 이어 송길동은 우과분자인 강명길과 리광수에게 결심을 말하  
라 하고 자신들은 투쟁의 대상이기 때문에 투쟁의 의지를 밝힐 수  
없다고 하자 송길동은 그들을 퍽박하고 열성분자들이 다함께 그들  
을 비판한다. 이런 과정에서 팔방 마을의 대부분 사람들은 쓴웃음을  
짓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의 전개는 상급에서 내려  
오는 정책을 시행할 때마다 반복된다. 그런데 팔방 마을에서 벌어지  
는 이러한 쓴웃음 나는 투쟁과 갈등은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닌 문혁  
이라는 극렬한 정치운동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정치운동 속에서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사원들은 갈등과 모순 속에서 서로 적개심을  
품고 경계했으며 언제나 한 번 보자고 버르고 있어, 정치운동이 남  
겨준 것은 사람들 간의 경계와 대립 정서 뿐’<sup>27)</sup>으로 팔방 마을 사람  
들은 점차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상황이 되고 만다.

이러한 정치운동의 폐해와 함께 <쓴웃음>에는 인간적이고 도덕적  
인 갈등이 여러 차례 발생한다. 그런데 <쓴웃음>에 등장하는 인물군  
중에 A에 속하는 송길동과 방춘달은 권력욕과 성욕으로 여러 문제  
를 발생시키는 인간적, 도덕적으로 결함을 지닌 인물이고, B군 인  
물은 자기 판단 없이 상황의 변화에 따라 행동하는 도덕성이 마비된  
인간임에 비해 C군 인물은 주변의 자신이 투쟁당하면서도 타인을

26) <쓴웃음 중>, 1040-1041면.

27) <쓴웃음 중>, 789-790면.

물어먹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암암리에 돕는 등 인간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완벽함을 보인다. 또 능력 면에서도 A군 인물은 무능하고 성과에 대한 욕심만 많고, B군 인물은 무능하고 게으르나 주관이 없이 권력의 지시에 동조하는데 비해 C군 인물은 능력도 뛰어나고 성실하며 주관이 뚜렷하고 D군 인물은 성실하나 주관이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나 앞가림하는 인물이다. 이러한 인물 갈등을 설정한 것은 사회주의 문학에서 탐욕스럽고 악랄한 지주와 부농 등 자산가와 성실하고 순박한 소작인과 노동자라는 도식의 변용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갈등 구도에서 대립의 양극에 서있는 A군과 C군 중에서 A군 인물인 송길동과 방춘달은 권력욕에 눈이 멀어 팔방 마을 사람들을 극단적인 정치 투쟁의 장으로 몰고 가고, 권력의 힘을 빌어 마을의 여성들과 간통하고, 자신의 죄상을 덮기 위해 살인도 서슴지 않는 절대 악인으로 설정하고 있다. 반면 계급의 적으로 비판받는 C군 인물인 정인철과 리광수 같은 인물은 생산대장에서 철직이 되어도 마을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도움이 필요한 마을 사람들에게 선의를 베푸는 절대 선인의 설정한다. 이러한 극단적 선인과 악인이라는 인물 설정은 지극히 비현실적이다.<sup>28)</sup> 인간은 도덕적 가치(윤리)와 인간적 욕망(본능)을 공유하는 존재로 정도 차이는 있을지언정 절대 선인과 절대 악인은 현실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적당히 선하거나 악한 존재로서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선하거나 악한 결정을 내리는 존재일 뿐이기 때문이다.<sup>29)</sup>

28) 이는 악인 지주와 선인 소작인이라는 사회주의 계열 농촌 소설의 선악 구도가 갖는 비현실성의 역전이다.

29) 일반적으로 인간을 '선인 - 범인 - 악인'으로 구분하지만 이는 인간의 선악을 논하기에는 부족하다. 김중신과 유미향은 C. S. 루이스의 이론은 원용하여 인간의 선악을 일곱 층위로 세분한 바 있다. (『문화의 시대와 문학적 문식성』, 『문학교육, 사회적 어젠다에 답하다』, 한국문학교육학회 창립 20주년 기념학술대회 발표문집, 2016.9.3., 23면.) 본고는 이 구분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네 층위

본능보다는 윤리 의식이 강해서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지키려 애 쓰는 C군 인물은 무법 상황인 문혁 기간에는 꺾박을 받지만 문혁이 마무리되면서 정인철은 생산대장의 자리를 되찾고, 강명길은 우파분자의 딱지를 떼고, 리광수는 빈농 신분으로 재분류되어 마을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다. 반면 윤리 의식보다는 본능에 충실했던 A군 인물 송길동과 방춘달은 무법천지였던 문혁 기간 중에는 권력을 누리지만 송길동은 아내의 셋서방인 방춘달의 손에 죽고 방춘달은 문혁이 끝나자 투쟁이 두려워 자살하고 만다. 이렇듯 A군 인물을 절대 악인으로 C군 인물을 절대 선인으로 설정하고, C군의 인물을 투쟁 하는데 앞서 비인간적인 행동일 일삼았던 B군의 인물들이 죽거나 미치거나 다른 마을로 이주한 것으로는 처리한 것은 문혁의 오류와 정치투쟁의 비인간성을 비판하기 위한 장치라 하더라도 극단적인 인물 설정은 비현실적인 소설적 장치라는 지적이 가능하다.<sup>30)</sup>

로 나누어 보았다.

| 절대 선인         | 적당히 선한 사람      | 적당히 악한 사람        | 절대 악인              |
|---------------|----------------|------------------|--------------------|
| 윤리○ 본능×       | 윤리 > 본능        | 윤리 < 본능          | 윤리× 본능○            |
| 법 없이도 살<br>사람 | 법이 있어야 살<br>사람 | 법이 없으면 잘<br>살 사람 | 법이 없으면 더 잘<br>살 사람 |
| 비현실적 인물       | 현실적 인물         |                  | 비현실적 인물            |

30) <쓴웃음>에 비해 <재해>에서 A, C군에 속한 최만근과 리석태, 김덕순 등은 그 양상을 조금 달리한다. 대약진운동 기간 중에 생산대장을 지낸 최만근은 권력욕에 불합리한 상급의 정책을 밀어붙여 려명촌의 경계를 파탄내었지만 윤리적인 파탄을 보이지 않았고, 또 대약진운동은 경제 운동의 성격이 강하고 정치 투쟁적 성격이 약해 마을 사람들 사이의 대립이 극심하지 않았기에 대약진운동이 끝나고 김덕순이 생산대 일을 다시 맡은 후에도 타도 당하지는 않는다. 이렇듯 <재해>는 A, C군에 속하는 인물들이 적당히 선하거나 악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쓴웃음>보다는 인물의 성격 설정이 어느 정도 현실성을 갖는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 2) 에피소드의 연쇄와 만담 수준의 상황 설정

〈쓴웃음〉은 원고지 9500매, 책 2200면에 달하는 분량으로 58개의 장으로 나뉘어 각 장마다 소제목이 붙어 있고, 각 장은 각각 숫자로 표시된 몇 개의 절로 나뉘어 있다. 〈재해〉는 원고지 3000매, 책 600면으로 13개의 장으로 나뉘고 이하 장절의 형태는 〈쓴웃음〉과 동일하다. 이 같이 소제목이 붙은 〈쓴웃음〉연작의 각 장은 대약진운동 시기부터 문화대혁명까지 러명촌과 팔방 마을이라는 조선족 농촌에서 벌어진 여러 사건이 발생하고 마무리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장회체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한 장에 하나의 사건을 담아 각 장마다 다른 사건을 이야기하는 구성 방식은, 작품 전체가 시작과 중간과 끝이라는 하나의 완결되는 구조를 가지는 일반적인 소설의 구성 방식과는 달리,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인물들이 체험한 사건들을 나열하는 방식 즉 에피소드의 연쇄<sup>31)</sup>라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쓴웃음〉연작이 이러한 에피소드의 연쇄를 사용한 것은 이들 작품이 『장백산』지에 장기간 연재되면서 한 기마다 작가 자신이 직접 체험한 사건이나 주변에서 수집한 일화를 소개하는 형식을 취한 결과이다. 문화대혁명을 비롯한 정치중심 시대에 발생한 수많은 우스꽝스럽고 비현실적인 사건들을 긴밀한 서사적 연관성 없이 나열하는 에피소드의 연쇄는 장기간에 걸쳐 중국 전체에서 발생한 문혁이라는 대규모의 동란을 단순한 소설적 구성 속에 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고안된 소설적 장치라 하겠다. 박선석은 문혁 기간 동안 부농의 자제로서 직접 경험한 사건들을 에피소드의 연쇄를 통해 상

31) 이러한 구성 방식을 소설론에서는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라 한다. 박태원의 〈천변풍경〉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된 이 방식은 객관적인 서술을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에 독자가 감응하게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황을 재현함으로써 독자들이 경험한 대약진운동에서 문혁에 이르는 정치중심 시대의 비합리적 사건들을 떠올려 작가가 말하고자 한 바에 감응하게 한 것이다. 또, 에피소드의 연쇄는 작품 전체가 구조적 긴밀성을 지니고 있지 않고 각 장 별로 독립된 이야기를 제공하여 독자들은 작품을 순서대로 읽지 않고 어느 한 장만 읽어도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독자 확보에 도움이 된다. 이런 점에서 에피소드의 연쇄는 〈쓴웃음〉 연작이 대중적 인기를 확보할 수 있었던 내·외적 요인이라 하겠다.

에피소드의 연쇄를 구성 방식을 선택한 〈쓴웃음〉 연작은 각 장마다 대약진운동과 문혁과 같은 정치중심의 시기에 있었던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인 사건들이 나열된다. 그런데 작가가 직접 체험한 사건이든 주변에서 수집한 일화든 그것이 소설화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픽션성 확보에 소홀한 탓으로 만담 차원의 상황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좋은 예는 〈쓴웃음〉에서 절대 악인으로 등장하는 송길동의 신분 바꾸기이다. '3장 참패' 편<sup>32)</sup>에서 송길동은 공산당 가입 서류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부친이 부농이었음이 밝혀져 토지 개혁 당시 신분 분류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음이 판명되어 계급의 적으로 투쟁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송길동은 '6장 둔갑' 편<sup>33)</sup>에서 자살을 하려다 포기하고는 기분 전환을 위해 이발소에 들렀다가 아들을 찾아다닌다는 조선족 노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가 신빈 사람으로 송씨이고 그의 아들이 조선전쟁에 참전했다가 돌아오지도 않고 열사증도 오지 않아 일 년 이상을 아들을 찾아 전국을 떠돌아다닌다는 사실을 듣게 된다.

송영감이 빈농이며 아들 이름이 송길동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송길동은 조선전쟁에 참가했을 때 우연히 만난 운전병이 신빈에

32) 〈쓴웃음 상〉, 101-141면.

33) 〈쓴웃음 상〉, 222-262면.

서 온 송길동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는 신분 바꾸기를 감행한다. 송길동은 송영감에게 그의 아들이 한국전쟁에서 폭격으로 사망했다고 속이고, 부모가 없는 자신이 송영감을 아버지로 모실 터이니 빚 값에 아들 송길동을 지주 송채호에게 빼앗긴 친아버지로 연극을 놀아줄 것을 부탁한다. 송영감의 도움으로 송영길은 빈농 출신으로 부농의 집에 끌려간 불쌍한 빈농 자제로 조선전쟁에 참가했다가 귀환하여 양아버지가 죽은 후 팔방 마을에 흘러들었고, 이제 우연히 친아버지를 만난 것으로 위장한다. 송영감의 출현으로 진정한 빈농으로 재분류된 송영길은 꿈꾸던 공산당원이 되고 생산대장으로 추대되는 영예를 누리고, 방춘달의 손에 죽을 때까지 온갖 권력을 휘두르며 팔방 마을을 황폐하게 만든다.

우연에 우연을 뒤섞은 이러한 신분 바꾸기 과정과 송길동의 딸과 누님까지도 그의 사기 행각에 적극 협조한다는 것은 거의 만담 수준의 상황 설정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송길동이 죽은 후, '39장 풍파' 편<sup>34)</sup>에서 송영감의 친아들인 군관 송길동이 팔방 마을로 찾아와 아버지와 상봉하고는 아버지를 모시고 자신의 근무지로 떠난다. 송길동이 위계로 신분을 바꾼 사실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죽은 송길동을 계급의 적으로 재분류하고, 그의 공적을 모두 말소하고, 무덤조차 파헤쳐 버린다는 에피소드는 작품 구성 상 불필요한 부분이자 만담보다 더 억지스러운 상황 설정이다. 이러한 만담 수준의 상황 설정은 〈쓴웃음〉 연작의 도처에 발견되는 바, 이는 작가의 직접 체험과 주변 사람들에게서 수집한 일화에 과도하게 허구적인 상상력을 첨가한 결과로, 이들 작품이 근대소설이 지향하는 소설 구성의 수준에 미달된다는 느낌을 주는 요인이 된다.

〈쓴웃음〉 연작은 에피소드의 연쇄를 통해 대약진운동부터 문혁까지의 정치 중심 시대에 전개된 모순과 불합리를 비판하고 있다. 그

34) 〈쓴웃음 하〉, 1811-1859면.

러나 소설의 구성 상 에피소드의 연쇄는 고전소설의 장회체 형식을 답습하였으며, 주제 면에서도 권선징악이라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연작은 1950년대 말부터 70년대 말에 이르는 기간에 중국 정부가 조속히 공산주의 국가를 완성해야 한다는 조급함으로 현실을 무시한 정책을 강압적으로 집행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만연하게 된 불합리한 혼란을 회화하여 신랄한 고발과 비판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 작품의 이면에는 적당히 선한 인물들은 투쟁 대상이 되었다가 복권이 되어 원래의 제 자리로 돌아가는 고진감래의 면모를 보이고, 적당히 악한 인물들은 타인들 위에 군림하다가 끝내는 비참하게 죽거나 미치는 인과응보의 결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고진감래와 인과응보 같은 권선징악의 가치관은 〈쏟웃음〉 연작에서 정치중심 시대의 혼란과 왜곡된 가치를 비판한다는 전경화된 주제와 함께 후경화된 주제를 형성한다. 〈쏟웃음〉 연작의 이 같은 이중적인 주제 설정은 현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서술과 평가를 지향하는 근대소설과는 달리 고전소설의 서사 전통을 답습한 것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 4. 결론

박선석은 문혁의 상처와 기억을 소설화한 상흔문학과 반사문학이 유행한 지 십여 년이 지난 시기에 〈쏟웃음〉 연작을 발표했다. 이 시기 조선족 문단은 중국 주류 문단의 흐름과 한중수교 이후 한국문학의 영향 아래 새로운 문학사조를 받아들여 획일적인 창작 방식을 벗어나 창작 상의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념이나 역사와 같은 거대 서사보다는 개인의 문제를 다루는 미시 서사가 강조되고, 한국과의 교류를 통해 나타나는 조선족 사회의 물신화 경향과 이중정체

성 문제를 중심 주제로 하고 있었다. 박선석은 이러한 조선족 문단의 변화에 따르지 않고 대약진운동부터 문화대혁명까지 조선족 농촌 사회에 불어닥친 왜곡된 현실과 그 속에서 고난의 시기를 보낸 조선족 농민들의 삶을 재현함으로써 역사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여 독자들의 공감을 얻었다.<sup>35)</sup> 그러나 농촌 지역의 조선족 문혁 체험 세대들의 공감에도 불구하고 〈쓴웃음〉이 보여준 문혁 시기에 작가가 농촌 지역에서 체험한 바를 에피소드 연쇄로 그려내는 방식은 그 방대한 분량에도 불구하고 조선족이 경험한 문혁의 일부만을 보여준 한계를 드러낸다.<sup>36)</sup>

〈쓴웃음〉 연작은 조선족 문단의 흐름과 이질적인 성격을 띠고, 대약진운동에서 문혁에 이르는 시기가 갖는 정치적·경제적 문제의 다양성을 제거하고 자신의 경험에만 한정했고, 특히 〈쓴웃음〉에서 다른 문혁 상황은 조선족 집거지인 연변 지역의 문혁과는 다르다는 한계를 보인다. 그러나 작품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바가 중국 사회의 주변부에 놓인 조선족 특히 농촌의 조선족들이 경험한 문화대혁명의 체험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독자들이 느끼게 된 공감력이 대중적 인기를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독자가 공감할 수 있는 제재를 익숙한 구성을 통해 전개함으로써 독서에 편리를 제공하여 더욱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 박선석은 이 같은 대중적 취향과 관련하여 작가로서의 자세를 언급하는 글에서 아래와

35) 박선석이 조선족 문단의 주류적인 흐름과 다른 방향을 선택함으로써 김호웅·조성일·김관용, 『중국조선족문학통사 하』(연변인민출판사, 2012.)를 비롯하여 조선족 문학을 사적으로 연구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낳았다.

36) 박선석이 과도하게 자신과 독자들의 체험에 기댈으로써 농촌과 도시의 문혁이 다르게 전개되었고, 조선족 산재지구와 조선족 집거지인 연변 지역에서의 문혁이 그 폭력성에서 완전히 달랐음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또 에피소드가 마을 사람들의 갈등과 투쟁에 치중함으로써 문혁을 경험한 세대들에게 중요한 상처로 남아 있는 홍위병 사건이나 집체호 문제가 부수적인 사건으로 그려지는 것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같이 독자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독자들이 나의 글을 읽어주지 않는 것이다. 읽고 나서 욕을 해도 읽어만 준다면 감사하다. 읽기부터 않는다는 것이야말로 작자를 놓고 볼 때 얼마나 맹랑하고 수치스럽고 안타까운 일인가? 문학작품은 우선 독자들을 흡인할 수 있는 자성(磁性)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설로 천하를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 독자들로 하여금 오락삼아 읽게 하고 쫓쌀만큼 한 그 무엇이라도 독자들에게 선사할 수 있다면 나는 만족이다.<sup>37)</sup>

박선석의 〈쓴웃음〉 연작이 대중적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대약진운동과 사청운동 그리고 문혁에 이르는 정치중심 시대를 농민으로 살면서 경험하고 또 주변에서 수집한 불합리하고 고통스럽고 우스꽝스러웠던 사건들을 소설화하여 독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박선석이 이들 작품에서 독자와 공유한 경험을 에피소드의 연쇄를 사용하여 작품 읽기를 수월하게 하고, 독자들에게 익숙한 선악의 대립구도와 권선징악의 결말을 사용한 것은 독자들이 큰 거부감이 없이 접근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독자들을 흡인할 수 있는 작품을 써서 독자들이 오락 삼아 읽고 일정한 감응을 받을 수 있으면 충분하다는 작가적 태도로는 대약진운동과 문혁과 같이 그 영향력이 거대한 역사적 사건을 다루기에는 한계를 드러내게 된다. 거대하고 복합적인 역사적 사건을 소설화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의미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역사적 사실의 의미화를 통하여 개개의 사실이 가진 의미에

37) 박선석, 『나의 문학관』, 『장백산』 1987년 5호, 176쪽. 오상순, 『흑색유머에 의한 역사 담론의 해체 - 장편소설 〈재해〉 시론』, 『조선족 정체성의 문학적 형상화』, 태학사, 2013, 307-308면에서 재인용.

대해 작가가 분명한 시각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역사적 사건은 하나의 에피소드로 존재하게 된다. 박선석의 〈쓴웃음〉 연작이 갖는 소설사적 의의는 중국당대사의 정치적·정책적 오류와 그로 인해 전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은 비극을 소설화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체제에 대한 의미화 과정이 결여된 결과 그것이 단순한 에피소드의 연쇄로 끝나고 만담의 수준으로 하락한 것은 이들 작품이 가진 소설적 한계라 하겠다.

## ■ 참고문헌 ■

- 박선석, 《쓴웃음 상, 중, 하》, 룡녕민족출판사, 2003.
- 박선석, 《재해》,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2007.
- 김중신·유미향, 「문화의 시대와 문학적 문식성」, 『문학교육, 사회적 어젠다에 답하다』, 한국문학교육학회 창립 20주년 기념학술대회 발표문집, 2016.9.3.
- 김현철, 「박선석과 이문구 소설에서의 상처 치유 양상 비교」, 『현대문학의 연구』 59, 2016.6, 443-474면.
- 김호웅·조성일·김관웅, 『중국조선족문학통사 하』, 연변인민출판사, 2012.
- 마중가, 「모택동 만년의 유토피아사상 연구」, 『중국학연구』 28, 2004.6, 479-504면.
- 박춘란, 「중국의 정치변동과 조선족 농촌사회의 문학적 형상화」,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박춘란, 「박선석 소설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39, 2013.4, 231-255면.
- 박춘란, 「박선석 소설의 이데올로기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42, 2013, 381-416면.
- 박춘란, 「문화대혁명과 조선족 농촌사회의 문학적 형상화」, 『한중인문학연구』 46, 2015.2, 23-45면.
- 서령, 「박선석문학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오상순, 「흑색유머에 의한 역사 담론의 해체 - 장편소설 <재해> 시론」, 『조선족 정체성의 문학적 형상화』, 태학사, 2013, 307-326면.
- 천쓰허, 『중국당대문학사』, 노정은·박난영 역, 문학동네, 2008.
- 최병우, 「정치우위 시대의 조선족 소설에 나타난 주제 특성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35, 2012.4, 245-266면.
- 최병우, 「조선족 소설과 문화대혁명의 기억」, 『현대소설연구』 54, 2013.12, 491-537면.
- 최삼룡, 「박선석의 소설과 농촌사회학, 박선석의 소설을 보는 한 시각」, 『연변문학』 2008.11, 116-130면.
- 황수민, 『린 마을 이야기』, 양영균 역, 이산, 2003.



<Abstract>

## A Study on Park Seon-seok's Novels

Choi, Byeong-Woo

Park Seon-seok created *A Bitter Smile*(쓴웃음) series a decade after the period of writing fictions out of the trauma of the Cultural Revolution, such as Sangheun-literature(상흔문학) and Bansa-literature(반사문학). In the Korean-chinese literary circles, the microscopic narrative was emphasized rather than the giant narrative due to the stream of Chinese main literary circles, and the influence of Korean literature after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and a variety of creative experiments were conducted on the theme of dual identity formed through the exchange with Korea. Park Seon-seok, in contrast to the changes in Korean-chinese literary circles, gained the sympathy of readers who experienced contemporary life by reproducing the life of Korean-chinese from the Great Advance Movement to the Cultural Revolution.

*A Bitter Smile* series depicted the other situation which was largely fictionalized different from the Great Advance Movement or the Cultural Revolution in Yanbian where most Korean-chinese experienced by eliminating the complexity of issues of the time from the Great Advance Movement to the Cultural Revolution and being limited only to the artist's own experience in the stragglng area. In addition, these works used episode sequences to share their experience

with readers, making it easier to read the works, using the confrontation between good and evil familiar to readers and the ending of Encouraging Good and Punishing Evil, which contributed greatly to the interest of readers.

However, *A Bitter Smile* series did not have a clear view of the individual events as a writer through signifying the meanings of the political turmoil from the Great Advance Movement to the Cultural Revolution, so that the events in the works failed to have organic meaning, and were left behind as episodes only. Through *A Bitter Smile* series, Park Seon-seok fictionalized the suffering experienced by the Chinese people, especially Korean-chinese, due to the political-policy errors of the Chinese contemporary history, but it can be said that it was the novelistic limitations of these works ending up with episode sequence and going down to the level of comic chat.

Key words: the Great Advance Movement, the Cultural Revolution, rural reality, artificial disaster, episode sequence, Encouraging Good and Punishing Evil

투 고 일 : 2017년 1월 7일

심 사 일 : 2017년 2월 15일-2월 27일

게재확정일 : 2017년 3월 4일

수정마감일 : 2017년 3월 10일